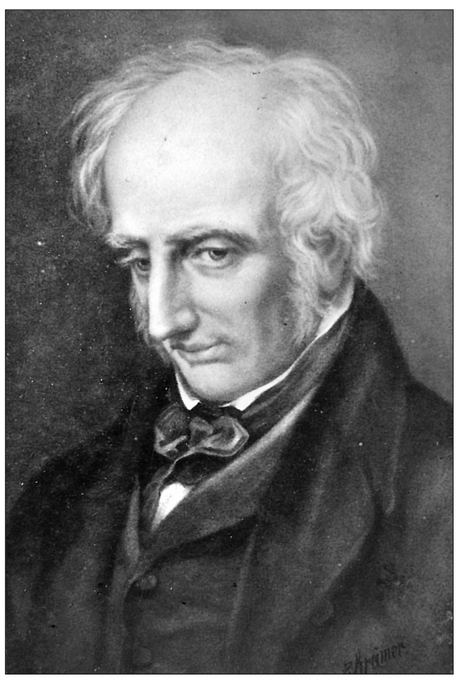
'生死一如'… 초월을 노래한 낭만 시인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③ 워즈워스의 詩選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어느 날. 영국 문학기행이라는 매혹적인 일정에 가슴은 온통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무언가 새롭고 풍부한 세계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의 탈출은 시작됐다.

온 세계인 인생의 깊이와 방향을, 그리고 문학의 향유 층을 넓혀 정신적 안목을 길러준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대학시절 정열에 불을 붙여준 에밀 부론테 등 여러 작가의 자취를 찾아 나섰다. 여러 작가 중 나에게 주어진 워즈워스의 작품 탐방에서 시의 산실인 도브코티지를 시작으로 작품 속에 숨겨진 그의 내면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모습(사진 왼쪽)과 그의 생가인 '도브코티지'의 전경.(사진 오른쪽) 워즈워스는 '도브코티지'에서 다양한 서정시를 창작했다.

워즈워스의 시의 산실 '도브코티지'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지방에 자리 잡은 도브코티지는 워즈워스 가족과 그의 누나 도로시가 10년간 산 곳이다. 워즈워스는 '수선화'와 '서곡' 등 그의 작품 중 가장 훌륭한 시들은 대부분 도브코티지에서 썼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 속으로 발을 디디는 아담한 집 한 채, 골목 한켠 비에 젖은 '도브코티지(Dove Cottage)'라는 푯말이 워즈워스의 숨결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쪽문을 들어서니 방안은 컴컴하고 천정은 낮았으나 페치카의 열기가 도로시의 따뜻한 체온처럼 기분 좋게 관람자를 감싸 안는다.

2층으로 된 건물에서 아래층은 도로시가 바느질과 가사 일을 하던 다양한 얘깃거리가 깃든 곳으로 간단하게 세면을 할 수 있는 세면기까지 놓여 있었다.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커다란 창이 있는 이층 방은 워즈워스의 무수한 영감이 떠오른 작업실 겸 침실로 아직까지 그의 고결한 영적 광채가 느껴진다. 옆에 위치한 자그마한 객실에는 콜리지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시인들이 기거하며 작품을 논하던 시의 향연이 펼쳐진 곳이다. 벽면에는 생동감 넘치는 작가들 눈빛을 담은 사진들이 나의 시선을 놓지 못하게 한다.

1802년 4월 15일 워즈워스는 도로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 날이 바로 4월 15일이니, 과거와 현재가 우주적 창을 통하여 회통의 기적적인 한 순간을 만든 것만 같아 퍽이나 감격스러웠다. 그들은 집으로 향하는 도중 '울즈워터'라는 호수 기슭에서 수선화를 보았던 것이다.

호수에 다니면서 더욱 많은 수선화를 보았다. 우리는 호숫가를 따라서 수선화가 시골 길의 넓이로 긴 벨트를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수선화를 본적이 없었다. 어떤 수선화는 지쳐 돌베개를 베고 쉬고 있었고, 나머지는 흔들리고 휘청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워즈워스는 도로시의 이 일기에서 수선화 장면을 읽고 영감을 받아 시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시가 쓰여 진 것은 워즈워스가 수선화를 본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였다. 워즈워스는 단순한 묘사적 스케치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명상적 사유를 거쳐 육화된 상상력의 색깔로 표현하는 것을 시라 했기에, 2년이라는 시간은 시가 만들어지는 불가결의 내면 숙성 기간이었을 것이다.

18세기 낭만주의 풍미한 시인
〈서정시집〉으로 詩 개념 변화
자연과 인간, 새로운 시각서 봐

난 문득 보았네, 수없이 피어난 황금빛 수선화를, 호숫가 나무아래 산들바람에
나부끼며 춤을 추는 모습을. 이 같은 흥겨운 벗을 두고 시인을 기쁘기 그지없어라.

워즈워스의 시 중에 우리가 암송하기 좋은 '수선화'의 한 구절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비평가인 매슈 아놀드(Matthew Arnold)는 워즈워스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그의 위대성의 원인은 단순함이며, 자연과의 교감은 단순하고 근본적인 애정과 의무 속에서 이러한 기쁨을 우리 독자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또 같이 공유하게 하는 엄청난 힘 때문에 워즈워스의 시는 위대하다."

물리적 자연을 넘어선 영적 자연의 여유로 우리를 끌어들인 워즈워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만들어진 도브코티지, 간절한 사랑 한 줌 남겨놓고 발길을 돌렸다.

워즈워스의 생애와 詩 세계

윌리엄 워즈워스(Willam Wordsworth)는 1770년 잉글랜드 서북부 호수지방인 컴벌랜드 코커머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변호사 존 워즈워스(John Wordsworth)의 다섯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북부의 대지주 중 한 명이었다. 다정다감하던 어머니는 그가 여덟 살 때 폐렴으로 사망하고, 아버지마저 그가 13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과 우울 속에서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다.

숨 막힐 듯한 환경에서 오직 구원의 길은 자연을 벗 삼는 일이었다. 신선한 바람, 하늘과 햇살, 안개와 비는 그를 키워냈다. 수련처럼 청렴한 그의 영혼에는 물들지 않은 자연이 스며들었고, 그의 가슴에서 숙성된 시어들은 더 없이 아름다운 어휘로 승화돼 독자들의 영혼마저 티 없이 맑은 기쁨으로 채워준다. 자연 속에서 성장한 그의 경험은 유년시절 추억으로 기억창고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시적 영감의 근원이 된 것이다.

1791년 대학을 졸업 후 그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혁명과 개혁으로 들끓던 프랑스로 건너갔다. 프랑스와 영국의 선전포고 속에서 그는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는 시를 많이 썼으나 이후 소박하고 친근한 언어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시를 써 내려 갔다.

몇 년 후 그는 누나 도로시와 레이스 타운에 살면서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면서 비평가인 콜리지(Coleridge)와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콜리지는 처음 만남에서 워즈워스의 천재성을 즉시 발견했다. 무명 시인이었던 워즈워스에게 콜리지는 '내 생각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평가하는 편지를 보냈다. 한편 워즈워스도 '내가 만났던 유일하게 경탄할 만한 사람'이라고 콜리지의 천재성을 칭찬하였다. 평범했던 워즈워스에게 갑자기 천재의 광휘가 번쩍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콜리지와 만남과 자극, 격려에 의해서였다. 워즈워스, 도로시, 콜리지 세 사람은 하나의 영혼을 가진 이상적 유대 관계를 만들었다. 워즈워스는 콜리지와 좀 더 가까이 살기 위해 레이스 타운에서 서머세트 엘폭스든으로 이주했다. 이주 1년 뒤 워즈워스와 콜리지는 영문학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서정민요시집〉을 간행했다.

'영생불멸 노래'엔 생사관 담겨
불교 윤회·전생 개념으로 채워
'不一不異' 인식… 초인의 경지

18세기 후반은 드라이든과 알렉산더 포우프를 필두로 하는 신고전주의가 그 박력과 활력을 잃고 있던 때였다. 구태의연하고 틀에 박힌 라틴 시의 모형이 아닌, 일상생활 언어인 〈서정민요시집〉이야말로 1세기 반 동안 영시를 속박시켜 왔던, 시적 가치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워즈워스는 기존의 시와 자신의 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었다.

"나의 시들이 자금에 유행하는 다른 시들과 구별되는 또 한 가지 요소를 언급해야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행동이나 상황을 통하여 감정이 주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시에서 싹터 나온 감정에 의하여 비로소 행동이나 상황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워즈워스의 시론을 압축하여 놓은 말이다. 그는 자연과 인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다. 그의 시작(詩作)은 경험들이 기억 속에서 변형된 상상력의 감응에 따른 비약-환상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워즈워스가 시에서 인간이 "자연을 반쯤 지각하고 반쯤 창조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워즈워스의 불교적 생사관

서시를 완성한 2년 후, 1807년에는 출생 이전의 신비한 직관을 기록한 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를 출간했다. 이 시야말로 워즈워스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체계적으로 담긴 시다. 워즈워스는 스스로 "유명하고 야심만만하여 장대한 시"라고 언급했다.

19세기 후반의 시인 홉킨즈는 너무나 감동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이 시가 쓰여진 날 영국을 위해서 가슴에 장미를 달았다"라고 외쳤다. 이 시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플라톤적 전생 사상으로 불교의 색채가 배어있다.

영생과 전생은 윤회사상의 바탕이다. 영생이란 한 모습으로의 영생이 아니라 윤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생을 의미한다. 유식학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선·악 업력을 보존한 아뢰야식이라 한다. 세상에 태어날 때도 과거세의 업력에 따라 육도(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국) 중 어디론가 강한 업력에 의해서 최초의 생명체로 출생하여 윤회류(輪廻流)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연에서 존재에 대한 무상과 마음의 평온(寂滅)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는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의 진리에도 접근한 시가 된다.

10연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항상 있을 것임에 틀림없는' 이것은 '상주'를 의미한다. 모든 사물은 변화하고 멸해도 진리만은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형상을 초월하여 상주한다는 것이다. 전생이나 윤회설은 인간 시야를 현세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한한 시공 속에서 펼친 것이다. 처음 연은 현상적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였으나 뒤로 가면서 그의 시는 시공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 회귀할 수 있다는 영혼 불멸의 관념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워즈워스의 시가 자연과 인간에 대한 단순한 사랑, 평범한 일상의 경험, 그것과 전혀 다른 세계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세계는 물러나고 내면적인 세계가 중시 되면서 가치의 기준들이 내면화되기 시작되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한다.

워즈워스가 추구한 것은 우주인생의 진리를 올바르게 보는 인간의 보편성이며 그 보편성은 더 나아가 인간과 우주영원 보존력 관계 같은 것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내면의 세계관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는 불교의 깨달음의 과정과 닮아 있다. 보편타당한 진리를 올바르게 보고 참되게 알아 그것을 자기화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을 완성한다는 사상에 접근한 것이 아닐까.

워즈워스는 삶과 죽음을 동질적 즉 생사일여(生死一如)라 생각하고 다만 형상의 옷만 갈아입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무명망념(無明妄念)을 연하여 생사의 괴로움이 생긴 것인데 워즈워스의 불일불이(不一不異)의 생사의 본질적 존재 인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상태이며 초인적 경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생사관이다. 다시 자연과 인간이 동일하다는 사물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상통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안명희 수필가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 1 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학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